

誠思想과 修道

朴昇植*

目次	
I. 序論	1. 儒家의 誠·敬·信
II. 誠과 修養	2. 大巡思想의 三要諦
1. 誠의 意味	IV. 大巡思想의 誠과 修道
2. 天道와 人道	1. 誠의 理解
3. 道와 修養	2. 誠과 修道
III. 大巡思想의 三要諦	V. 結論

I. 序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신조(信條)인 삼요체(三要諦)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신조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가 있는데, 사강령에 관해서는 기 연구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요체인 誠·敬·信 중 誠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誠은 동양사상의 핵심이 되어 온 儒敎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誠은 대순사상에서도 삼요체 중 제1로 삼아 중요한 敎理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은 우리의 전통적 신앙과 민중생활을 토대로 형성된 종교사상으로서, 우리의 전통사상과 종교적 유산을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대순사상은 한국의 전통 사상과 종교의 근간이 된 동양사상을 종합한 민족종교로서 현대사회에 적합한 교리체계를 갖고 있다. 하나의 종교는 기존의 가치와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대순사

* 행정학 박사

상은 한국의 고유한 종교와 사상은 물론 우리의 사상과 종교에 영향을 미친 동양 사상을 통합한 종교사상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宗教思想으로서 新宗教라 할 수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다른 신종교에 비해서 포교를 통한 교세확장(教勢擴張)과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종교연구에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교는 교리체계나 제의, 조직체계 등이 새롭고, 布教를 통한 교세확장과 같은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신종교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종교이론을 검증할 수 있으며, 종교현상과 새로운 종교 이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²⁾ 특히 대순사상은 한국의 신종교 가운데 우리의 전통적 문화와 신앙생활을 통합하고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교리체계를 형성하여 종교연구를 하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삼요체 중 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삼요체인 誠·敬·信은 수도와 수행을 하는 기본을 말한다. 삼요체는 대순사상을 이해하고, 수도를 하는데 기본으로 준수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삼요체 중 誠은 유교에서 체계적으로 사상을 정립하였으며, 대부분의 종교에서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교에서의 誠思想, 三要諦인 誠·敬·信의 意義, 그리고 대순사상의 誠概念과 修道와의 관계를 論究해 보고자 한다.

II. 誠과 修養

1. 誠의 意味

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의(字意)를 파악하고, 誠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誠은 中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中庸에서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許慎의 '說文'에 의하면 “誠信也 言成聲”이라 하여, 誠은 言과 成의 합으

1) 金鍾瑞, 현대 신종교의 이해(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 강돈구, “신종교연구 서설”, 종교학연구, 제6집(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87), pp. 182-183

로 이루어진 것으로 言에 의미가 있고, 成은 음부(音符)만 취한 것이라 한다.³⁾ 그리고 ‘說文’은 成자를 戊자와 丁자의 결합으로, 戊자는 초목이 무성한 것을 뜻하고, 丁자는 초목의 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成자는 言符로서 뿐만 아니라 成就, 成遂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誠은 言과 成의 양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誠은 말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言)은 인간이 의사를 전달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말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듣는 수단이다. 따라서 말은 인간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대화를 하는 데에는 바른 마음과 진실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마음과 진실한 생각을 하여야 자신의 뜻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뜻이 진실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자신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으며 설득시킬 수 없다.

인간의 말이 상호간에 진실하게 교류하여야 어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인간 생활은 말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전달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나 완성은 진실한 말을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뜻에 동의하게 하여야 가능하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과 뜻을 교류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 바른 마음과 뜻을 갖고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언어를 통한 행위에 거짓이나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論語 子路篇에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中庸에 “말은 반드시 행위를 돌아보아야 되고, 행위는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言行一致를 강조한 것이다.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고하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호간에 진실한 마음이 교류하지 않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신뢰감도 가질 수 없다.

誠자가 중국 고전에서 처음 쓰인 것은 ‘商書’ 태갑위(太甲謂)의 “鬼神無常

3)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 관한 研究”,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83), p. 139.

享 享干克誠”과, 周易의 건괘(乾卦)에 “閑邪在其誠” 등이다. 그리고 說文에 서는 誠은 充, 信, 敬의 뜻으로 전부 진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誠이 공자시대에는 忠信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논어 學而篇에 ‘主忠信’이라 하였고, 이에 대해서 “人不忠則 事皆無實”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忠信의 의미가 발전하여 中庸의 誠으로 형성되었다. 誠이 윤리적 의의와 철학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공자 이후의 諸 經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교의 핵심사상인 誠은 中庸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보고 있다. 中庸에서 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中庸 20章의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用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라는 것이다. 誠者는 天之道라 한 것은 誠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誠은 본래 天理인데 誠者는 천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聖人の 道라 한다. 유교에서 聖人は 진실하고 무망한 최고의 인격자로서 이상적인 인간이다. 따라서 誠者는 聖人을 뜻하는 것으로 天道를 실행하는 존재이다. 中庸의 誠에 대해서 朱子는 진실무망(眞實無妄)이며 天理의 본연이라 하였다. 誠은 眞實無妄한 것인데, 이는 天道라 한다. 그리하여 誠은 하늘의 道이며, 인간은 天道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人慾과 私가 있어서, 그 德이 항상 진실하지 못하여 인격 수양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간은 인간적인 욕망과 허욕 등으로 天道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不誠하지만 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고, 자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수양을 하면 온전한 誠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朱子는 “사람이 받은 氣는 밝게 통하기 때문에, 능히 추리할 수 있으나, 物은 받은 氣가 탁하고 塞하여 능히 추리할 수 없다(朱子曰 然人所稟之氣通 故能推 物所稟之氣塞 故不能推)”⁴⁾고 하여, 物은 진리를 자각할 수 없으나 인간은 진리를 자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모두 성실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보통의 인간은 천도를 따라 성실해 지려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유교에서는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인간의 본성

4) 近思錄.

을 발휘할 수 있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고 한다.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좋은 것을 택하여 굳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아는 것은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배제하여 정진하는 것이 誠之者의 태도라는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은 좋은 것을 택하여 좋은 것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이것이 人道라는 것이다. 인간은 誠을 실행하여 진실무망해지려는 노력을 계속 실천해야 天之道에 이를 수 있다. 그리하여 진실무망한 것은 천도이며 진실무망해지려는 것은 인도이기 때문에, 천도인 誠은 本然論的 개념이며, 인도로서의 誠은 修養論的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유가에서는 誠은 神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中庸 鬼神章에는 “鬼神之德됨이 盛大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지만, 萬物의 本體가 되어 하나도 남김이 없느니라(子曰 鬼神之爲德 其盛 矣乎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不可遺)⁵⁾”한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귀신은 物心二元論에서 정신적 실체로서 우주의 주재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陰陽論에서는 귀신을 음양의 氣로 보는데, 귀신(음양)의 조화로 현상세계가 생성된다고 한다. 鄭伊川은 “鬼神은 天地之功用이요, 造化之迹이라”한다. 天地之功用은 氣의 발현에 의한 天地의 작용으로 寒來暑往, 日往月來, 春生夏長 등 모든 자연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造化之迹은 風雨霜露, 日月晝夜 등이라 한다.⁶⁾ 禮記 祭義篇에서는 공자의 말로 “其氣發揚于上하여 爲昭明焜蒿悽愴하니 此는 百物之精也오 神之著也라” 하였다. 天地之功用에 대한 주자의 설명은 자연현상으로 보고, 공자의 百物之精은 천지만물의 精氣이고 神之著는 神明의 영기(靈氣)를 말한 것이다.

주자는 귀신은 氣의 굴신작용(屈伸作用)이요, 그 德(性情功效)은 곧 天命之實理로서 이른바 誠이다(朱子曰 鬼神只是氣之屈伸 其德則天命之實理 所謂誠也)⁷⁾라 한다. 주자는 귀신은 氣의 근본으로서 物의 본체이며 物은 物心兩物으로서 모두 기로부터 생한 것이며, 誠은 귀신이 갖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

5) 中庸, 鬼神章.

6) 裴宗鎬, “孔子의 中庸思想”, 韓國孔子學會, 孔子思想과 現代(서울 : 도서출판 思社研, 1986), p. 189.

7) 中庸, 鬼神章.

라 誠은 實로서 실제로 존재하며 眞實無妄하다고 한다. 中庸에서는 귀신의 誠을 말한 것으로, 誠은 귀신과 인간에게 모두 통용되는 實理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朱子는 誠을 “指鬼神之實理而言”이라 하여 實理를 강조하고, 栗谷은 “誠者는 天之實理요, 心之本體라⁸⁾하여 天과 人의 근원은 實理이며, 본체는 誠으로 보고 있다. 誠은 천과 인간의 본질로서 인간에게는 초월적 天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誠 개념은 증용의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명하는 것(天命之謂性)”이라 하여 性을 天命으로 보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기의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그대로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완전히 발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발휘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완수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⁹⁾ 인간의 사명은 저절로 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性을 알게 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공자가 天命을 50이 되어서야 알 수 있게 되었는데(五十而知天命)¹⁰⁾, 인간이 사명을 모르고서는 君子가 될 수 없다(不知命 無以爲君子)¹¹⁾고 하였다. 인간이 사명을 안다는 것은 天命을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고, 사명을 실행하려는 것이 誠을 실천하는 인도라는 것이다.

인간이 天命을 깨닫는 率性之道가 君子之道라 하였는데, 性을 따르는 것은 忠(本心)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忠恕를 행하는 것이다. 論語에서는 曾子가 말한 “夫子的 道는 忠恕뿐이라” 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忠恕는 공자의 ‘一以貫之’를 해석한 것이다. 一以貫之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初志一貫의 의미이다.¹²⁾ 인간이 이기적인 욕구에 동요하지 않고 설정한 立志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그리고 中庸에서는 道에서 멀어짐이 멀지 않다(忠恕違道不遠) 하여 아직 道에 이르지

8) 聖學輯要, 卷三.

9) 李東仁, “誠之者の 態度”,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83), p. 162.

10) 論語, 爲政.

11) 論語, 堯曰.

12) 具本明, 中國思想의 源流體系(서울 : 大旺社, 1982), p. 17.

못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견해는 忠恕는 道 自體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忠恕가 極에 이르면 聖인의 경지인 一以貫之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忠恕를 실행하고 一以貫之하여 眞實無妄한 생활을 하는 것은 仁과 聖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공자는 “어찌 仁만 행하는가, 반드시 聖에 이르러야 한다”¹³⁾라 하여 仁보다는 聖을 강조하고 있다. 聖은 仁을 완전히 실현한 상태로서, 이러한 상태를 실현한 사람을 聖人이라 한다. 그리고 孟子는 사람의 도를 이해하고 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맹자는 “道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善人이고, 道를 지닌 자는 信人이고, 도를 충실하게 갖춘 자는 美人이고, 도가 내면적으로 충실하고 밖으로 광휘가 드러나는 자는 大人이고, 大人으로서 質的 變化를 가져 온 자는 聖人이고, 聖人으로서 그 경지를 알 수 없는 자는 神人이라 한다”¹⁴⁾ 맹자는 최고의 인격체를 神人이라 하여, 공자의 聖人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보고 있다. 공자나 맹자나 誠을 지극히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 인간상으로 설정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로 誠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天道와 人道

유가에서는 誠을 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에 대해서 儒家와 道家에서는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¹⁵⁾ 동양철학과 사상은 유가, 도가, 불가 등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儒佛道는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종교, 철학, 정치, 교육 등의 학술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상하여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의 전통과 민족성에 의해 中國化되었다. 중국불교는 인도불교와는 달리 中國化되어, 중국사상은 유가와 도가의 사상이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論語, 雍也, 何事於人 必也聖乎

14) 孟子, 盡心下, “可欲之謂善 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15) 柳聖泰, 東洋의 修養論(서울 : 서울 學古房, 1996), pp. 51-52.

유가는 정치사상, 윤리사상, 교육 등 현실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도가는 종교적 신앙과 繪畫, 詩文 등 예술적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유가사상은 상류층의 지도자 학문이 되었고, 도가사상은 상류 지식층에서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는 人道主義와 합리주의적인데 비해서, 도가는 형이상화적이며 신비주의적이어서 그 내용이 다양하다.¹⁶⁾ 유가는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禮樂의 人文主義 文化를 강조하고 仁義道德을 근본으로 하는 人爲的 肯定的 積極主義인데, 노자는 無爲自然을 주장하는 否定的 超脫的 性격을 갖고 있어 대조적이다.

春秋戰國時代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기라서 사상적으로 자유로워 諸子百家의 사상을 탄생시켰다. 정치와 사회의 혼란은 불안과 부조리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불만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 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을 노자와 장자는 사상적으로 정리하여 무위자연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지나친 허욕과 투쟁이 弱肉強食의 富國強兵을 강화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보다는 자연으로의 回歸를 강조하게 하였다. 노자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유교문화에 대해 저항하게 하였으며, 세속적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비판하게 되었다.

도가의 근본은 노자의 道德經인데, 노자의 道와 德은 유가의 도덕적·인륜적 도덕이 아니라, 자연적·철학적 의미의 도와 덕이다. 인간적 의미의 도덕론과 윤리론이 아니라, 자연적 의미에 있어서 철학적 영역인 道(眞理觀)와 德(得의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존재를 밝히는 진리로서 道인데, 이는 인간주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재한 자연성이라는 뜻에서 德을 함축하고 있다. 德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는 의미에서 得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유가와 도가에서 보는 道の 개념은 다르다. 유가에서는 人道위에 天道가 있다고 보는데, 도가에서는 인도와 우주의 천도가 하나라고 보고 있다. 유가에서는 천도는 天理로서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원리이고, 최상의

16)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p. 138.

도라 보고 있는데, 도가에서는 인도가 곧 천도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도가에서는 도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천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天道와 人道에 관한 주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 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유가와 같이 천도는 인도가 당연히 본 받아야 할 원리적 道라는 법천설(法天說)이고, 다른 하나는 천도와 인도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¹⁷⁾ 그러나 여기서는 도가와 유가의 道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자는 道德經 제1장에서 인간이 규정하여 도라고 한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인간이 有名하다고 가치 부여를 한 것은 영원 불변의 가치로서의 有名이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라 한다. 王弼은 道라 할만한 道는 어떤 사건이나 일정한 형태에 대한 지칭으로서 영원한 진리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한다.¹⁸⁾ 그러므로 도라 할 수 없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인간이 판단하고 규정하여 진리라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즉 도가에서는 도의 작용의 유무도 세속적 사물의 一端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지,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도가에서는 도에 접근하는 데에는 인간이 人慾을 탈피한 無爲를 통해서 자연의 경지에 이름을 말한다. 자연과 무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無慾, 無名 등이 도에 접근하는 길이라 한다. 무위자연은 인간 초탈의 방법이며, 진리에 접근하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이다.

노자는 無를 근본으로 사상을 집약하였다면, 장자는 無에서 虛의 세계를 정리하였다. 노자는 無知와 無慾을 강조하면서도 無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無慾을 실행하라고 주장하여, 무지와 무욕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으로 강조한다. 반면에 장자는 인간의 언어와 지식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그 상대적 결함을 논하면서, 실천적 忘我的 경지에서 참된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여 천지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장자는 도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 道の 遍在說을 주장한다. 노자는 도는 고상하고 초월적인

17) 김갑수 譯, 천인관계론(서울 : 신지서원, 1993), pp. 195-237.

18) 上揭書, p. 141.

데 비해서, 장자의 도는 내면적 普遍說을 주장한다.

그러나 유가에서는 도를 천도와 인도로 구분하고 있다. 천도는 성인의 경지를 말하고, 인도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도를 말한다. 천도는 만물을 化育할 수 있는 體와 用을 겸비한 天理를 뜻한다. 성인은 천도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것이 誠하지만, 賢人이나 君子는 全體之誠이 되지 않아 편벽되고 불완전하여 천도에 이르려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성인이 되지 못한 人이나 君자는 천도를 실행하기 위해 수양을 하여야 한다.

인도는 君자가 행하여야 하는 君子之道이다. 유교에서는 도를 인간과 무관한 외적 대상인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도로 보고 있다. 中庸 제13장에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고 한 것은, 도는 인간 자체에 내재한 것이므로, 인간이 진리의 주체(人能弘道 非道弘人)라 한다. 인간의 마음이 道體인 性을 넓히는 것이지 無爲로서 道體가 사람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한다. 그리하여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道不遠) 내 자신 속에 天命之誠으로 도가 내재한 것으로 보아 인간이 주체가 되어 도를 깨달아야 한다.¹⁹⁾

현실적으로 보통의 인간은 욕망과 사심을 초월하여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內面性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도의 주체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각과 확충이 문제가 된다.

인간이 도를 깨닫고 행하는 것은 인간이 본성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率性之道(率性之道)가 君자의 도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우주 내의 한 개체이며, 자기의 천성을 벗어 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사명이 있다. 이러한 인간이 당연히 실행해야 할 道는 率性이니, 천성인 天理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中庸 備旨에 도는 天에 근원이 있지만, 君자가 행함으로써 天道가 드러난다(子思自立言曰 道原於天而盡於君子 故爲君子又之是道也)고 보았다. 공자는 인격의 수양 정도에 따라 인간을 小人, 士, 君子, 聖人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소인은 下道라 하고 君자는 上道라 한다. 소

19) 沈佑燮, 前揭論文, p.163.

인은利害에 따라 행동하고 군자는 의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에 장자는 도를 아는 방법은 無思無慮라 한다. 장자는 無思無慮로 도를 알게 되고 無處無服으로 도에 안주하게 되며 無從無道로 도를 얻게 된다(無思無慮始知道 無處無服始安道 無從無道始得道)²⁰고 한다. 莊子は 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無爲之事와 不言之教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도가에서는 자연계의 淸淨無爲를 법으로 삼는 道法自然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도를 우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만물이 자생하고 自在하며 自足하는 자연의 경지이다. 도를 有爲的·作爲的 가치판단에 의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입장에서 도를 관조한다.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도에 가까운 것이며, 사물을 사실 그대로의 도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술수나 인위적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得道的 경지를 지향하는 길이라 한다. 따라서 도가에서는 천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道와 修養

동양에서 수양을 하는 주목적은 大道를 행하고, 뜻을 세우고(得志) 不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이다.²¹⁾ 大道는 天道와 같은 의미로서 최상의 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는 것이 수양을 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수양의 목적도 유가와 도가에서는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儒學의 이념은 大學에서 삼강령(三綱領)으로 강조하는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들과 친하며, 지극한 선에 그치는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그침을 안 후에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으며, 마음이 고요해진 이후에 처한 바가 편안해지고, 처한바가 편해진 이후에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깊이 생각한 이후에 도를 터득할 수 있다(知止而後 有定 定而後 能靜 靜而後 能安 安而後 能慮 慮而後 能得)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20) 莊子, 知北遊.

21) 柳聖泰, 東洋의 修養論(서울 : 서울 學古房, 1996), p. 51.

처음과 끝이 있으니,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할지를 안다면 도에 가깝다(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고 하였다.

유가의 수양목표는 大學에서 밝힌 三綱領을 실행하는 데 있다.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을 밝힌다는 것이다. 도덕적 본성은 자연의 理法으로 사람이 타고난 것인데, 그 자체는 밝은 것이라 한다. 이 밝은 도덕적 본성이 인간의 氣質的 慾望에 의해 파괴된다고 한다. 인간은 善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성장을 하면서 사욕과 물질 등에 의해 비도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파괴된 선한 본성을 회복하여 도덕성을 갖추려면 수양을 해야 한다.

기질적 욕망에 의해 파괴된 본래의 도덕적 본성을 밝게 들어낼 때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도덕성을 지닌 인간으로 확립된다.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 즉 밝은 도덕성을 지닌 자신을 찾는 것이 유가가 추구하는 제1의 과제이다.²²⁾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실현하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인간이 품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仁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仁이란 人과 二의 합성어로서 두 사람 사이, 나아가 인간사회에서 지켜야 할 원리를 말한다. 仁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자신을 억제하며 禮를 지키는 것(克己復禮)이며, 나의 마음에 비추어 남을 이해하고 위해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²³⁾ 인간이 이러한 仁의 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여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은 仁의 정신과 태도를 지닌 仁人이다. 인간이 仁人이 되는 것이 人道를 완성하는 것이다.

仁에 대해서 공자는 논어에서 “자기의 사욕을 이겨 禮에 돌아감이 仁을 실천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돌아간다. 인을 실천하는 게 자기 몸에 달려 있지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禮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仁이란 사욕을 극복하고 禮를 준행하는 것으로서, 예를 실행하는 데에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

22) 李完裁, “儒學의 精神”,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83), p. 9.

23) 上揭論文, p. 10.

다고 한다.

인간이 仁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인간이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은 도리를 따라야 하는데,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도리가 仁의 정신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도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도리는 仁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庸과 孟子에서 仁이 바로 人이라 하였던 것이다.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은 仁의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仁人이라 할 수 있다. 仁人은 인간이 타고난 품성을 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인간이 仁人이 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은 仁을 온전히 실행하는 聖人이다. 論語에서 공자는 인간은 仁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聖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 유가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대표적 인물들은 堯, 舜, 禹, 湯, 文武, 周公, 孔子 등이다. 이들은 유가에서 師表로 수양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유가는 본래 실천적 학문으로 이상적 인간상도 이론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유가에서는 성인을 본받고, 스스로 성인이 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성인은 공자의 해석을 보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法度를 벗어나지 않는 생활이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²⁴⁾ 그리고 易의 文言傳에서는 聖人은 “천지와 더불어 德을 같이 하며, 日月과 더불어 밝음을 같이 하며, 四時와 더불어 次序를 같이하며, 鬼神과 더불어 길흉을 같이하며, 하늘이 그를 어기지 않고 하늘에 뒤서서는 天時를 어기지 않나니, 하늘도 어기지 않거니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하였다. 따라서 성인은 人爲的인 차원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의 理法과 합치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明明德은 修己로서 주어진 生을 존중하고 현실에서 타고난 本性의 판단에 따라 건전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24) 論語, 爲政篇.

그 전형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밝히고 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데에서부터 인간의 윤리관계는 시작되고, 이것이 모든 윤리관계의 기본이라 한다. 그리하여 유가에서는 孝는 덕지본(德之本)이라 하여 모든 도덕적 행위의 근본으로 삼는다. 부자간에 있어야 할 사랑의 감정이 부자간은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는데, 효도와 우애의 근본은 仁을 행하는 근본이라 하여 효제(孝悌)가 윤리의 전형이고, 이것이 발전하여 인간의 이상적 인격인 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유가에서 사랑을 본질로 하는 인간의 마음을 仁義禮智信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五常이라 한다.

修己로서 明明德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도덕성을 강조한다. 정치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는 친민(親民)이다. 그리하여 유가에서는 修己治人을 본령으로 삼고 있다. 修己와 治人을 至善으로 행할 때 내성(內聖)·외왕(外王)의 경지에 이른다. 修己를 극진히 하면 안으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 治人을 극진히 하면 밖으로 王天下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王天下는 平天下와 통한다. 平天下는 지상세계의 안녕과 질서의 완성을 뜻한다. 평천하의 실현은 인간의 완성인 인도의 실현, 도덕의 완성을 통하여 얻어지는 세계이다. 평천하는 유가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이다.

그리하여 유가의 정치사상은 法治보다는 德治를 강조한다. 공자는 論語 爲政篇에서 “정치적 명령으로 백성을 이끌고 법률적인 제재로 백성을 통제하면 백성들이 윗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사랑으로 이끌고 양심적인 自覺性에 호소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게 될 것이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冤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 하여 德治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德治를 강조하였지만, 도덕적 정치방법은 실제의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德治가 현실 정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성찰한 맹자는 정치방법을 수정하였는데, 그것이 王道論이다. 맹자는 覇道와 王道를 비교하여 “힘으로 仁을 가장하는 자가 覇이고, 德으로 仁을 행하는 자가 왕이다. 힘으로 남을 복종하게 하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니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德으로 남을 복종하게 하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고 하였다. 맹

자는 정치인인 왕과 지배계층인 사대부 자신이 뺏는 정치(奪之之治)에서 주는 정치(與之之治)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왕과 사대부가 먼저 자기의 이기적 物慾과 지배욕을 억제하고, 仁義政治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의 王道論은 지배계층이 이기적인 욕구를 배제하고, 백성을 존중하여 백성들이 지배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정치를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유가에서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도 도덕성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인간사회와 정치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자연의 理法에 두고 있다. 유가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원리가 인간의 本性에 근거하고,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理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서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자연의 조화가 완성된다고도 한다. 이것은 우주는 天地人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만물의 대표적 존재로서 도덕적 완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개인 생활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도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도덕적 지배를 하여야 이상적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인격 수양과 행동에 따라 인간을 小人, 士, 君子, 聖人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인은 수양을 하여 최고의 인격을 갖춘 이상적인 존재로서 천도를 행하지만, 小人, 士, 君子 등은 철저히 성을 실행하려는(誠之又誠之) 수양을 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인의 경지는 일조일석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실한 수양의 정도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은 生知, 學知, 因知의 개인차가 있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성실한 수양에 따라 정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수양하려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최고의 인격을 갖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수양을 하면 지극한 善에 이르는 지어지선(止於至善)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도가에서는 수양을 하는데 도가 하나임을 깨달아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사물을 자연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의식하지 않는 것이 도이며, 어떠한 술수나 인위적 행위

를 하지 않는 것이 得道의 生活이라 한다. 이러한 도의 실행에 있어서 仁義나 是非를 하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仁義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處世的이고 세속적이어서 도의 참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형체, 색깔, 이름, 음성으로 도의 참모습을 인식할 수 없는데, 이러한 감각으로 도를 이해하려는 것은 도를 깨닫는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 장자는 이해, 귀천, 시비 등 인간적 판단은 相對的 知에 불과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자연의 운행과 조화하면서 무심하게 순응하는 것이 도를 따르는 길이라 한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부정적 논리에 근거하여 수양할 것을 강조한다. 노자와 장자의 부정적 표현은 懷疑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의를 극복한다. 인식되는 모든 대상을 회의적으로 보고 일체를 부정하여 불가지론적(不可知論的)으로 표현한다. 장자는 “대체로 참된 도는 명칭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참된 변론은 말로 하지 못한다(夫大道不稱 不辯不言)”²⁵⁾고 한다. 도는 말로 나타낼 수 없다는 부정적 논리는 언어의 한계성과 인간 인식의 불완전성에서 연유한 것이며, 大道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대한 인간의 정의는 완전한 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자의 柔弱, 장자의 無用 등은 주체성의 부정적 긍정을 의미하는데, 장자는 부정적 입장에서 內觀的 이해와 주체적 초월정신에 따라 자기 초탈의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부정논리는 가시적 세계에 대해 절대적 가치 부여를 부인하는 일종의 不可知論的 相對性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알고 있는 현상세계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부정 논리를 주장한다.

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와 부정논리에 의해, 장자는 수양의 목적을 (1) 개성과 가치의 원리, (2) 초탈의 원리, (3) 자연과 일치하는 자발적 자유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두고 있다.²⁶⁾ 그는 인간 초탈의 원리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養生, 處世, 得道의 道로 정립된다. 장자의 수양 목표는 자연의 도를 따르는 順自然的 思考로서 無爲의 자연적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25) 莊子, 齊物論.

26) 柳聖泰, 前揭書, pp. 79-87.

養生之道는 장자의 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정신의 자연스런 작용만이 이상적 삶으로 유지되며, 天理에 의존하는 것만이 양생의 도에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 즉 자연의 大道에 하나가 되고 性情을 잃지 않으며 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장자는 處世의 目標로 현실 초탈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상적 삶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에도 관심이 많다. 장자는 처세적 방법으로 柔弱과 謙下, 內와 外의 中에 처하여 치우치지 않으며, 상언(常言)을 하며, 교지(巧知)를 버리고, 세속을 따르면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며 방종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장자는 끝으로 得道的 目標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의 근원적 힘은 道에 있는데, 이 도는 脫人格體이지만 사람이 우주를 따르면 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도에 이르면 사람과 우주가 일체가 되어 도를 체득하게 된다고 한다. 장자는 도에 이른 사람은 아무 것도 옳다 하지 않고 아무 것도 잘못이라 하지 않는 무차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得道的 目標에 이르는 것이 수양의 최고 목표이다.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되어 무위자연을 온전히 실행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Ⅲ. 大巡思想의 三要諦

대순사상의 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요체의 의의와 誠·敬·信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순사상의 誠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誠과 敬, 그리고 誠과 信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삼요체는 유가의 사상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儒家的 觀點과²⁷⁾, 대순사상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儒家의 誠·敬·信

유가에서는 인간이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은 誠을 실현하는 聖人이다.

27) 沈佑燮, 前揭論文, pp. 148-156.

즉 仁人이 되어 人道를 완성하고 나아가 誠을 온전히 실행하여 天道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수양목표로 삼고 있다. 天道인 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하는데, 修養工夫는 敬이 중요하다고 한다. 敬은 원래부터 誠과 함께 강조하여 왔다. 敬은 ‘說文’에 “敬肅也 𠄎支苟”라 하여 모든 것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禮記’ 曲禮上에서는 “恭敬撝節”이라 하여 恭과 敬으로 설명하고 있다. 恭은 외양상으로는 조심성이 많은 것 같지만 마음은 적은 것이고, 敬은 마음속으로는 조심성이 많지만 외양으로는 적게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呂覽孝行’에서는 “敢不敬乎”의 註에서 “敬畏慎也”라 하여 두려워하고 조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字意的으로 볼 때 敬은 인간이 말과 행동을 삼가고 마음을 조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敬 사상은 經書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詩經’에서는 도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論語에서는 21개의 敬자가 나오는데 모두 행사와 관련된 것들이며, 敬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周易 文言傳의 “敬以直內”에서 시작되었는데, 宋代 性理學에 큰 영향을 미친다.

性理學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周濂溪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純粹至善하지만 外物에 접하여 善惡이 생기기 때문에, 主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수양공부로는 主靜과 無慾을 주장하였다.²⁸⁾ 그는 聖人은 靜을 중심으로 본성인 誠을 온전하게 실행하지만, 五性(仁義禮智信)이 外物과 접하면서 욕심이 생기므로 主靜의 수양공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周易 文言傳의 “敬以直內 義以方外”를 인용하여 程明道는 “敬으로 內를 정직하게 하고 義로서 外를 방정하게 하여 敬義를 세우면, 德은 외롭지 않게 된다”²⁹⁾고 하였다. 정명도는 “敬은 天의 道요, 敬은 人사의 근본이니 敬은 곧 誠이다”라고 하여 誠은 내적인 것이고 敬은 외적인 것으로 表裏關係에 있다고 하였다.

敬이란 畏敬, 주일무적(主一無迹), 정제엄숙(整齊嚴肅)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주일무적이란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것을 말하고, 정제엄숙이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을 엄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敬의 본래 의미는 외경이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28) 太極圖說, 全集, 卷一.

29) 二程全集, 卷二.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으로 종교적 경건성을 뜻한다. 敬은 인격적 주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된 개념이다.

유가에서 敬을 체계화한 것은 鄭伊川이다. 鄭伊川은 致知는 窮理이며 用敬은 居敬이라 하였는데, 이는 未發·主靜에 편중된 수양법을 未發과 己發은 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³⁰⁾ 周濂溪는 仁義가 만물을 생성한다고 하면서, 主靜은 無慾이라고 해석하였다. 靜은 周濂溪가 주장한 太極圖說에서 “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動이 지극하면 靜하니 靜하여 陰을 生한다. 靜이 지극하면 다시 動한다. 한번 動하고 한번 靜하여 서로 뿌리가 되며 陰으로 分立하고 陽으로 分立함에 兩儀가 分立한다.”고 하여 太極의 動靜을 설명하고 있다. 鄭伊川은 周濂溪가 主靜을 無慾이라고 하였는데, 無慾이나 禁慾主義는 불교나 도가의 사상이지 유가의 사상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主敬이라 하였다. 鄭伊川은 “靜은 불교의 주장으로, 靜字를 사용하지 않고 敬字를 사용한다”고 하여 主敬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主靜은 불교적인 것으로 유가의 寡慾과 다르므로, 主敬이라 하였다. 鄭伊川은 “敬하면 저절로 虛靜하게 된다. 虛靜을 敬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敬靜의 근본이라고 한다. 수양은 正心誠意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眞知를 알기 위한 格物工夫를 강조하고 있다.

朱子는 “居敬窮理”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居敬은 내적인 것이고, 窮理는 외적인 것으로 보았다. 朱子の 敬思想은 聖人이 되는 길로서, 공자의 仁, 맹자의 仁義, 증용의 天道와 같은 사상은 모두 敬과 통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敬은 誠과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朱子는 誠은 “純一無爲”라 하고, 敬은 “主一無適”이라 하였으며, “誠은 天의 道요, 敬은 人사의 근본이니 敬은 곧 誠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敬은 誠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誠에서 敬의 의미를 찾고 있다.

유가에서는 信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유가에서의 信의 의미를 字意的으로 보면, ‘說文’에 “信誠也 人言”이라 하였고, 許慎의 ‘說文解字註’에서는 “信誠也 卽言成聲”이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信은 인간의 언어로서 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誠은 말(言)과 成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信과

30) 유명중, 성리학과 양명학(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p. 28.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사람의 말에 거짓이 없는 진실과 성심이 있어야 함으로 人과 言이 합하여 信이 되었으므로 誠과 통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내면적으로 진실하고 정성을 가져야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誠과 信은 윤리적 측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철학적 입장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誠과 信은 形而上學的, 認識論的, 存在論的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보면 誠은 天道로서 體로 볼 수 있고, 信은 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 보면 誠은 인간의 주체로 볼 수 있으며, 信은 대상으로 客體로 볼 수 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誠과 信은 二元的 一元化로 이해하여 誠과 信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誠의 의미는 信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誠의 의미를 규명하면 信의 의미는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극진히 하고, 남을 이해하는 誠을 행하면 天理의 性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誠한 마음과 행동이 남에게까지 전달되면, 자신이 완성되고(成己) 일을 완성하여(成物),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여 서로간에 성실과 신뢰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실한 자기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세계를 이루는 길이라 하여 중용에서는 “不誠이면 無物”이라 하였다. 無物은 단순히 감각적인 사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이 부재하여 실리적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誠이 없으면 사물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誠과 信은 이원적이면서 일원성을 갖게 된다. 대학의 明明德과 親民의 관계에 있어서도 爲政者가 誠한 진심을 갖고 백성을 다스려야 백성들로부터 信實性を 인정받아 자신의 참 뜻을 펼 수 있다. 위정자가 德治를 진심으로 행하여야 백성들이 盡誠하고 忠誠하여 각자가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위정자의 성실성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상호간에 信實성이 相通하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大巡思想의 三要諦

대순사상의 三要諦인 誠·敬·信은 유가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삼요체에 대해서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은 거짓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며, 경은 바른 예절 생활을 하는 것이며, 신은 믿는 마음이라 한다. 이러한 성·경·신 중에서 誠은 다음 章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敬과 信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敬은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라고 하고 “사람은 누구나 마음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 則有之 無其心 則無之)”고 한다.³¹⁾ 인간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먹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옳은 일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敬이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敬은 항상 지성을 다 하여야 하며 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한다. “敬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이다.”라고도 하여 예의범절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³²⁾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敬은 옳은 마음을 가지며, 바른 행동으로 예의범절을 준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一心을 갖고 진실한 행동을 하는데 지성으로 해야 한다.

信에 관해서는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라고 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한다. 信은 확고한 신념체계로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지하는 믿음이라 한다.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³³⁾고 하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非人間的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信은 자아대성(自我大成)을 하는 기본이라 한다.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을 위한 작업이 信인

31) 대순지침, p. 52.

32) 대순지침, p. 52.

33) 대순지침, p. 53.

34) 대순지침, p. 53.

것이다.”라 하여 믿이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한다.

대순사상의 삼요체인 성·경·신은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각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본래의 의의가 발현될 수 있다. 誠한 마음을 가져야 남을 공경하는 예의바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계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신은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실행되어야 참 의의가 발현될 수 있다.

IV. 大巡思想의 誠과 修道

1. 誠의 理解

대순사상에서는 三要諦 중에서 첫째로 誠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誠에 관한 내용을 보면, 첫째, 誠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라 한다.³⁵⁾ 誠은 인간의 精神과 氣와 神이 통합된 것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체를 뜻한다. 誠을 神으로 보는 것은 유가의 견해와도 통한다. 유가에서는 귀신을 정신적 실체로서 천지의 모든 작용을 관리하는 우주의 주재자로 보고 있다. 특히 주자는 귀신은 氣의 굴신작용(屈伸作用)을 뜻하는데, 그 德은 天命之實理로서 誠이라 한다. 주자는 귀신은 氣의 근본으로서 物의 본체이며, 物은 모두 기로부터 생긴 것으로 誠은 귀신이 갖고 있다고 한다. 中庸에서는 귀신은 誠이라 하는데, 誠은 귀신은 물론 인간에게도 통용되는 實理라 한다. 즉 유가에서는 神은 氣의 작용으로 우주의 모든 작용을 주재하는데, 그 바탕은 誠이며, 이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가의 개념에 따라 대순사상에서 誠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이라 하고 있다. 誠은 인간의 정신과 氣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誠은 남의 간여도 증감도 견제도 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심정(心定)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³⁶⁾고 한다. 誠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루어

35) 대순지침, p. 51.

36) 대순지침, p. 41.

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 誠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 오직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와 마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誠은 仁善으로 스스로 성실한 생활이 도를 실행하는 기본이며, 誠이 만물의 존재 원리라 한다. “불일이이(不一以二)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自誠)이 도성(道誠)의 정석(定石)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³⁷⁾고 한다.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도를 따르는 기본인데, 이러한 誠이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라 한다. 이러한 誠 개념은 中庸에서 말하는 “不誠이면 無物”이라 한 것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됨을 지닌 사람이라야 능히 그 性을 다할 수 있나니 그 性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만물의 性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만물의 性을 다할 수 있으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을 것이요,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함께 병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唯天下不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³⁸⁾고 한 것과 통한다. 성실하지 않으면 實理를 밝힐 수 없으며, 사물에 대해 지극한 성실을 다하지 않으면 천지만물의 化育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인간이 참된 성품을 갖고 眞實無妄한 誠을 실행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참된 성품을 갖고 옳은 일을 지성으로 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誠思想은 앞에서 말한 성은 神이라는 의미와 관련된다.

“성(性)은 마음이 밝혀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과 같아지니라.³⁹⁾

37) 대순지침, p. 51.

38) 中庸, 第22章.

39) 대순진리회,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p. 75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신과 인간이 화합해야만 우주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신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誠한 생활을 하여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誠하고 덕을 쌓아야 신과 상통하여 天道와 地道가 완성되고, 신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신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 신이 없으면 인도할 곳이 없게 되니, 신과 인간이 화합하여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야 백가지 공사를 이룰 수 있으며, 신명이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이 신명을 기다리며, 음양이 상합하고 신과 인간이 상통한 후에야 天道가 이루어지고 地道가 완성되며,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도 이루어진다. 40)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 인간을 음과 양으로 인식하고,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협력관계를 가져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양으로 신을 음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신이 각각의 덕을 결합해야 한다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실현을 의미한다. 전경에서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⁴¹⁾ 하였다.

다섯째,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은 신명과 교류하는데,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덕을 쌓는 성실한 생활을 할 때만이 신명과 교류할 수 있고, 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명은 사람의 생활태도와 능력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고 도와준다고 한다. 신명은 인간이 성실한 노력을 하면 보호하고 도움을 주지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명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 대순사상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 도덕성과 생활윤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은 항상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 신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
 族人人族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
 事成 典經, 교운 제2장 42절, p. 207

41) 전경, 재생 43절, p. 309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⁴²⁾

여섯째, 誠은 바른 마음을 갖고 忠言을 하며, 옳은 일을 실행하는 것이며, 誠한 생활을 하여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⁴³⁾하여, 마음을 깨끗이 가질 것을 강조한다.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은 忠言을 하는 것이라 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인데, 말을 좋게 하여 德이 되게 하여야 한다⁴⁴⁾고 한다.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⁴⁵⁾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데에서 복이 온다(真心堅守福先來)⁴⁶⁾고 하여, 誠을 실행하는 것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최상의 길이라 한다.

일곱째, 誠은 忠恕(忠恕)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임원들은 항상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도인들을 길러야 한다.”⁴⁷⁾고 한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유가의 忠恕와 같은 의미이다. 朱子는 忠恕를 “盡己之心爲忠이요 推己及人爲恕”⁴⁸⁾라 하여 忠은 나의 중심(本心)을 다하는 마음이고 恕는 자기를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이라 한다. 忠恕는 誠의 도를 따르는 入門이고, 下學處이다. 恕는 忠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忠은 體고 恕는 用이다.⁴⁹⁾ 忠이 誠이 되어 君子之道는 忠恕를 통하는 것으로 仁과 誠을 체득한 것이다. 이

42) 典經, 교법 제1장 29절, p. 226

43) 典經, 교법 제1장 21절, p. 225.

44) 대순지침, p. 46.

45) 典經, 교법 제2장 1절, p. 234.

46) 典經, 교법 제2장 3절, p. 234.

47) 대순지침, p. 26.

48) 中庸, 第13章, 註.

49) 沈佑燮, 前揭論文, p. 144.

러한 유가의 忠恕를 대순사상에서도 誠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대순사상에서는 “배반자에게 후의(厚意)를 베풀어서 과오를 뉘우쳐 감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⁵⁰⁾고 한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도 이해하고 도움을 주어 감화시켜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의 誠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다.

2. 誠과 修道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修道라 한다. 三要論은 수도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誠은 수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수도는 字意대로 道를 닦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우주 대원(宇宙大元)의 진리’, ‘영원한 진리’,⁵¹⁾ ‘우주 만상의 시원(始原)이며 생성변화의 법칙’⁵²⁾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도는 우주의 영원한 진리이며,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모든 법칙 등이라 한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道 개념은 유가, 도가, 불교 등에서 전개한 도의 개념을 통합하여 종교적 사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한편 “道란 부단불식(不斷不息)하여 무형무적(無形無跡)하고,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공명정대하여 무위무가(無爲無假)하며 무편무사하여 두과지리(豆瓜之理)와 같다.”⁵³⁾고 한다. 도란 중단과 휴식이 없으며 형태와 자취도 없으며, 소리와 냄새도 없으며, 공명정대하여 어떠한 조작이나 거짓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아서 곡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자연적 이치라 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道家的 의미라 할 수 있다. 도는 심오하여 그 존재를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연의 理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

50) 대순지침, p. 26.

51) 대순지침, pp. 23-24.

52) 대순지침, p. 44.

53) 대순지침, pp. 92-93.

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⁵⁴⁾고도 한다. 도는 음양에 의한 자연현상과 인간 생활의 이치, 인간이 지켜야할 경위나 법 등이라 한다. 대순사상의 도는 음양의 조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하는 이치를 근본으로 하며, 여기서 인간 생활에 적용되는 모든 경위와 법이 나온다고 본다. 인간도 음양에 의해 태어나고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에 의해 형성된 경위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한편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原)이며 생성 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곧 인성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⁵⁵⁾”라 한다. 도는 우주 만물을 생성한 근원이며 만물의 변화 법칙으로서, 덕이 인간의 본성으로 새로운 맥이라 한다. 인성은 새로운 맥으로서 정신의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은 윤리도덕이라 한다.

이상과 같은 대순사상의 도의 개념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는 각각의 법칙과 이치가 있다고 전제하여, 하늘에는 천도(天道)가 있고, 땅에는 지도(地道)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인도(人道)가 있으며, 그리고 인간과 신명세계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도(神道)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天道는 우주의 순환 원리와 법칙을 뜻하고, 地道는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말하며, 人道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지켜야 할 도리나 법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명과 인간은 陰陽合德的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신명세계의 구성과 인간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神道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天道와 地道는 천지지도(天地之道)라고도 하는데, 인간계와 자연계를 관통하는 영원불변의 진리, 자연의 법칙, 필연의 理法 등을 의미한다. 천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준칙으로 보고 있다. 地道란 天道와 음양관계에 있는 지상의 도로서, 하늘과 땅이 상호 협력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원리이다. 易經의 繫辭에 “천지의 위대한 작용은 끝없는 낳음이다(天地之大德曰生)”라 한 것과 같이, 무한한 생산을 하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고 理法이라 한다.⁵⁶⁾ 천지는 자연적 작용을

54) 대순지침, p. 18

55) 대순지침, p. 44.

56) 李完裁, 前揭論文, p. 15.

남게 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과 변화를 하는 본체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태극상태의 음양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음양합덕이라 한다.⁵⁷⁾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향과 특성이 대립적인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과 양이 相反應合인 대립과 통합을 반복하는 합덕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고 변화한다고 한다. 음양합덕은 우주 만물의 생성원리이며, 사물이 창조된 곳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순환을 영속적으로 하는데, 이를 天地之道라 한다. 인간과 만물은 생멸변화를 되풀이 하지만, 道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만물의 변화하는 원리 자체를 의미하여 영속하다고 한다.

둘째,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人道라 한다. 인도는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유가에서 말하는 誠之者와 같은 의미이다. 대순사상에서 인도를 중시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原罪를 인정하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절대자에게 구원을 호소한다. 불교는 인간의 삶은 苦行, 또는 苦業이라 전제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한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생을 존중하고, 현실을 중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찾도록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은 출생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한 인간이 태어난 데에는 先靈神들이 육십년이라는 장시간 공덕을 기울인 결과이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도 쓸만한 자손 하나를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간의 출생 자체에 대해서 신이 공력을 들인 것으로 인식하여,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⁵⁸⁾”라 하여, 성실한 생활을 할

57) 음양과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음양합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는 大巡思想學術院에서 陰陽合德 特輯號로 발간한 大巡思想論叢, 제2집(1977)을 참고하기 바람.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대순사상에서 신도(神道)는 인간과 신이 상호 직접적인 감응관계(感應關係)가 있다는 특수한 도의 개념이다. 神道란 인간이 신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인간의 행동에는 신명이 같이 한다는 개념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신명의 도움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데, 인간이 참된 마음을 갖고 일을 할 때만이 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덕을 상대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⁵⁹⁾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도를 깨닫는 과정을 수도라 한다. 수도를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도 한다. 수행이란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은 바른 인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인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참된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수행에는 신명이 나를 항상 관찰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⁶⁰⁾ “우리의 도는 신도(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함은 신도와 인위적인 사도(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⁶¹⁾ 하여 인간은 신명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옛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 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⁶²⁾하고 있다.

수도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天地之道, 人道, 神道를 깨닫고 실행하려는 일체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修道를 하는 목적은 첫째, 道通을 하려는데 있다. 대순지침에 따르면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 했을 때에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⁶³⁾고

58) 典經, 교법 제2장 36절, p. 241.

59)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60) 대순지침, p. 39.

61) 대순지침, p. 39.

62) 대순지침, p. 42.

명시하고 있다.

도통에 대해서 대순사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 아즉도(道卽我 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三界)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인 것이다”⁶⁴⁾라는 것이다.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宗旨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철저한 수도를 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만 한다. 이러한 수도를 하여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곧 도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正覺)한다. 도에서 인간과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데에서 도즉아(道卽我)이며, 반대로 내가 곧 도라는 아즉도(我卽道)가 성립하게 된다. 도가 인간이라 한 것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적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수도를 통해 도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환하게 통할 수 있으며, 천지인(天地人) 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 도통을 하게 되면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道인 天道, 地道, 人道, 그리고 神道 등에 완전히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無不通知),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無所不能) 경지에 이른 것이다.

둘째, 수도를 하는 목적은 신과 같은 인격을 완성하는데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도를 닦은 자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도를 닦은 자는 죽어도 정혼이 흩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 신이 되지만, 도를 닦지 않은 자의 정혼은 흩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하리라.⁶⁵⁾

63) 대순지침, p. 37.

64)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p. 9

65) 전경, 교법 제2장 22절, p. 237

인간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는 인격을 도야하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死後)에 신이 되지 못한다. 인간이 신과 같이 존중받고 죽어서 신이 되려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성을 고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이 도를 닦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신들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의 도움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생활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망을 받을 수 없고, 신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⁶⁶⁾

넷째, 수도를 하는 목적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여 완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였을 때 도통에 이른다”⁶⁷⁾고 한 것과 같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것이 수도의 목적이다. 수도를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人道를 실행하여 儒家에서 말하는 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한다.

수도생활은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를 하는 성실한 생활은 훈회와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⁶⁸⁾ 훈회와 수칙은 대순사상의 실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신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훈회에 관해서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66) 전경, 교법 제1장 25절, p. 225

67) 대순지침, p. 38.

68) 대순지침, pp. 43-44.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⁶⁹⁾라 하고 있다. 훈회는 첫째가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인데, 참된 마음을 갖는 것은 誠을 실현하는 시작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⁷⁰⁾” 고 하여 참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내가 먼저 마음을 참되게 갖고, 나를 존중하고, 신의로 생활할 것을 강조한다. 내가 먼저 참된 마음과 올바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되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⁷¹⁾ 한다.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참된 마음을 가져야 참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음과 몸을 닦아 심신이 일치되도록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⁷²⁾

그리고 언덕(言德)을 쌓아야 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서 말을 좋게 하여 덕이 되게 하여야 하고, 말을 나쁘게 하면 여암(餘殃)이 나에게 미쳐 온다⁷³⁾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너희들은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갈 지니라.”⁷⁴⁾ 하고 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말을 하여 남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남에게 말을 잘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재앙이 돌아오며,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가 잘되고 나에게도 복이 돌아 온다고 한다.

69) 대순지침, pp. 42-43.

70) 대순지침, p. 70.

71) 대순지침, p. 76.

72) 대순지침, p. 45.

73) 대순지침, p. 46.

74) 典經, 교법 제2장 50절, p. 243.

誠은 척을 짓지 않는 것이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⁷⁵⁾ 하여 척을 짓지 않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 한다.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미워하여 척을 지으면, 나에게 보복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리하여 척을 풀 것을 강조한다.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⁷⁶⁾ 고 한다. 그리고 척을 짓지 않으려면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⁷⁷⁾ 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報恩相生을 중시한다. 報恩은 사람만이 아니라 천지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지만, 자신이 입은 은혜는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을 것을 강조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은혜를 갚는 기본적 행동은 孝이다. 효란 인간이 태어나고 양육을 해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으로 보은의 기본이다. 효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보은으로, 효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보은을 할 수 없다. 보은은 효를 시작으로 형제간의 우애인 悌가 이루어지고, 타인들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은혜를 갚는 忠으로 확대된다.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유가의 忠恕를 실행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순사상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라 하고 있다. 자기보다는 남이 잘 되

75) 典經, 교법 제2장 440절, p. 242.

76) 대순지침, p. 27.

77) 대순지침, p. 27.

도록 하라는 것은 相生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상생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타주의를 의미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기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인간과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기주의적인 행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속성을 상극으로 보고 있으며, 상극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류가 파멸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는 상극의 원리를 상생의 원리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훈회와 수칙을 실행할 때에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은 인존사상이고, 평화사상이라 하고 있다.

수도는 聖人の 태도를 가지려는 것이다.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락을 취하여야 되느니라.”⁷⁸⁾ 하여 마음을 닦는 데에는 성인을 본 받으려는 태도로 하고, 일을 할 때에는 영웅과 같은 태도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닦고 덕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알기만 해서는 효용이 없고 실행하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것을 알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리라.”⁷⁹⁾ 하여 실행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실행치 않는 것은 바위에 물 주기와 같으니라”⁸⁰⁾하여, 옳은 일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양심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성현으로 추존받은 옛 사람은 성(誠)을 일생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다.”⁸¹⁾ 라고 하여 지극한 성으로 수도하면 성현아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면서 한

78) 典經, 교법 제1장 23절, p. 224.

79) 典經, 교법 제3장 28절, p. 255.

80) 전경, 교법 제1장 23절, p. 225

81) 대순지침, p. 41.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되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⁸²⁾고 한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한마음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원인이 있으니,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갖고 정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誠을 실행하는 수도는 유가에서 중시하는 忠恕를 따르는 것이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남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나니라.”⁸³⁾ 하였고, “트집을 잡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누구리고 지는 사람이 상등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나.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오.”⁸⁴⁾ 라 하였다. 그리고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⁸⁵⁾ 하였다. 다른 사람을 천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며, 나아가 원수라 하더라도 은인과 같이 대하면 복을 얻게 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질 때 신이 도와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 말고 조심하라”⁸⁶⁾,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⁸⁷⁾ 하여 복은 신명이 주는 것이기보다는 인간이 마음을 정화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인격을 도야하여 덕을 쌓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신명들이 도와주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갖지 않아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 신명이 이를 알고 바르게 잡아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덕을 쌓지 않고, 능력에 맞지

82) 典經, 교법 제2장 5절, p. 234.

83) 典經, 교법 제1장 38절, p. 227.

84) 典經, 교법 제1장 55절, p. 231.

85) 典經, 교법 제1장 56절, p. 231.

86) 전경, 교법 제1장 36절, p. 227

87) 전경, 교법 제1장 21절, p. 225

않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⁸⁸⁾

인간이 성실한 생활을 하며 인격을 완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인간이 화합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명들이 각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의 화목상태를 파악하고 신명이 도와 줄 것인지, 도와 주지 않을 것인지를 평가할 것이라 한다. 가정이 화기(和氣)를 잃으면 신명들이 도와 주지 않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신명의 도움을 받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⁸⁹⁾

V. 結論

이상으로 동양의 誠思想과 대순사상의 三要諦 중 하나인 誠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살펴 본바와 같이 유가의 誠思想과 대순사상의 誠은 공통점이 많다. 대순사상의 三要諦는 유가의 誠思想과 敬과 信思想을 종교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도가에서 주장하는 無爲自然의 실현을 위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誠은 道를 깨달으려는 수도의 기본이다. 대순사상에서 수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道通을 하는데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誠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誠을 바탕으로 한 생활을 하여야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

88) 전경, 교법 제1장 29절, p. 226

89) 전경, 교법 제1장 42절, pp. 228-229

리를 할 수 있으며,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 즉 유가에서 강조하는 誠之者로서 人道를 완성하고, 天道를 실행하는 聖人の 경지에 이르러자 하는 것이 대순사상의 수도의 목적이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깨닫는 것(道之覺)이며, 생활에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되게 하는 修行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도는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고 완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眞實無妄하여 참된 마음으로 지성을 다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수도를 위해서는 誠을 바탕으로 敬과 信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른바 삼요체인 誠·敬·信을 종합하여 실행하여야 올바른 수도를 할 수 있다. 참다운 마음을 바탕으로 공경하면서, 확고한 신념체계에 따라 수도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近思錄.

論語

대순지침

孟子

二程全集

典經

中庸.

莊子

太極圖說, 全集.

강돈구, “신종교연구 서설”, 종교학연구, 제6집(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87).

具本明, 中國思想의 源流體系(서울 : 大旺社, 1982).

金鍾瑞, 현대 신종교의 이해(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大巡眞理會 教務部,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教務部, 1969), p. 9

朴昇植,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朴昇植,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朴昇植, “道通眞境의 宗教的 의의“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李東仁, “誠之者의 態度”,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83).

李完栽, “儒學의 精神”,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83).

裴宗鎬, “孔子의 中庸思想”, 韓國孔子學會, 孔子思想과 現代(서울 : 도서출

관 思社研, 1986).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 관한 研究”,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83).

劉明鍾, 宋明哲學(서울 : 螢雪出版社, 1987).

柳聖泰, 東洋의 修養論(서울 : 서울 學古房, 1996).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鄭大珍, “陰陽合德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鄭大珍, “解冤相生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4집(大巡思想學術院, 1998)